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중심으로 -

김 영 란

혜천대학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슈즈디자인전공 전임강사

요 약

패션에서의 레트로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표현의 포괄성과 복고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은 근본적으로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식이며 시각적 은유를 통하여 문화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성(gender)이나 시간(T), 장소(P), 상황(O) 등으로 각각 조합되어 새로운 미적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레트로의 복고적 성향은 시간성의 개념이 강하게 부각된다.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적 관점은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역사관과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 시간성이 반영된 현대 패션에서의 복고적 요소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표현된다. 즉, 과거를 풍미하였던 대표적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이 현대적 재질, 새로운 기술, 현대적인 디자인과의 결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통적인 직물과 패턴, 과거의 제작 기술 등이 도입되기도 하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식,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이 함께 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을 연구하고자 독창성과 창의적 디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인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이들의 레트로 경향과 그 재해석의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레트로 경향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21세기의 레트로 패션은 현재의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스타일을 표방하고 재창조하려는 주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레트로 는 패션과 예술, 문화 산업 등에서 시대를 떠나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역사나 이미지를 재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자이너의 감성을 복합적으로 접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200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재해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가지의 레트로 특성을 접목하기 보다는 상호 관계와 복합성을 가진 다중적 주제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레트로, 포스트모더니즘, 재해석,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패션에서의 레트로(retro)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의한 표현의 포괄성과 복고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은 근본적으로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식이며 시각적 은유를 통하여 문화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¹⁾ 여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성(gender)이나 시간T(time), 장소P(place), 상황O(occasion) 등으로 각각 조합되어 새로운 미적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레트로의 복고적 성향은 시간성의 개념이 강하게 부각된다.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적 관점은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시간관과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²⁾ 시간성이 반영된 현대 패션에서의 복고적 요소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표현된다. 즉, 과거를 풍미하였던 대표적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이 현대적 재질, 새로운 기술, 현대적인 디자인과의 결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통적인 직물과 패턴, 과거의 제작 기술 등이 도입되기도 하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식,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이 함께 출현하기도 한다.³⁾

최근 TV에 등장하는 파워 숄더 재킷(power shoulder jacket)과 가죽 레깅스를 착용한 가수 ‘이효리’의 패션은 1970년대 핑키(funky)적 레트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러한 패션에서의 복고적 성향은 1960년대 하위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의 조화로 발생했던 패션 혁명에 기인되었다. 2000년대 이후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후세인 살리안(Hussein Chalayan),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의 젊은 영국 출신 디자이너들이 발표했던 파격적이

고 다원화 경향이 짙은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주제와 표현형식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본다.⁴⁾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활발하게 나타난 레트로 경향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독창성과 창의적 디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인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이들의 레트로 경향과 그 재해석의 표현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들 디자이너를 선택한 근거는 차별화된 독창성으로 패션의 선도적 작품 활동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복고성에 근거한 재해석의 표현성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레트로 경향’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2000년대 이전의 일반적인 레트로 경향을 비교 고찰하여 2000년대 레트로 경향의 표현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그 범위를 2000년대로 제한하지만, 선행연구로 1900년대 패션경향의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레트로 경향의 이론적 배경의 토대가 되며 2000년대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과의 차별성 및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패션은 현재의 경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트렌드나 디자인 개발에 적용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므로, 2000년 이후의 현대 패션을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의 미적 특성을 찾아봄으로써 변화하는 트렌드 및 두 디자이너의 레트로 표현특성을 정리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레트로’를 주제로 하여 레트로 패션의 개념 및 발생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2000년대 이전의 패션 흐름과 2000년 이후의 레트로 스

타일의 고찰을 통하여 미적 특성을 알아본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발표되었던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분석하여, 전위적이고 독창적인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미학, 건축, 광고, 철학, 사회학, 문화사, 문학 및 예술관련 서적을 통하여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국내·외 패션 관련 문헌과 2000년대 컬렉션(collection), 패션쇼(fashion show), 『보그(Vogue)』, 『엘르(Elle)』, 『스타일(Style)』 등의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사 및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두 디자이너의 레트로 경향과 그 재해석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레트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레트로 패션의 개념과 발생배경

패션은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차용해 의복이라는 미적가치를 표출하는데, 이러한 복식에서 역사의 의미는 단순히 시대적 양식을 구분하는 지표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의복의 조형적 요소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⁵⁾ 패션은 반복적이지만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이러한 새로움 속에서도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공통된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20세기 중반부터 과거의 스타일을 교차, 변용시키는 레트로 패션이 등장하게 되고, 특히 20세기말(1900년대 후반)에는 밀레니엄에 대한 불안과 기대 속에 레트로 패션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패션에서의 레트로는 복고적 패션풍조를 말하는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로서 ‘회고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회고적, 옛것을 그리는’⁶⁾이란 사전적 의미로, 향수를 느끼게 하는

패션, 옛날의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올드패션의 리바이벌(revival)을 레트로 패션이라고 한다.⁷⁾

2. 2000년대 이전의 레트로 패션

20세기(1900년대)는 기계, 기술, 과학문명의 발달로 전통과 관습이 붕괴되고, 민주화, 현대화가 촉진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날로 복잡해져가는 사회와 현대화에 비판과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1960년대에 와서는 영 문화(young culture)와 반문화(anti-culture), 아방가르드(avant-garde)의 등장으로 과거 유행했던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노스탤지어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20세기 중반 등장한 ‘레트로 룩(retro look)’의 초기 경향은 당시의 시대 취향을 표현하기 때문에 패션에 그대로 영감을 주게 된다. 패션에서 레트로가 시작되었을 당시 다른 생활상품에는 소위 ‘re-’마켓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물건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재생하는 것이 중요시됨을 보여준다. ‘리모델(re-model)’, ‘리뉴얼(re-newal)’, ‘리폼(re-form)’, ‘리메이크(re-make)’, ‘리바이벌(re-vival)’, ‘리사이클(re-cycle)’등이 그것이다.⁸⁾ 60년대의 미니스커트와 복고주의 디자인이 새로운 패션모드로 등장했고, 특히 기계적인 느낌의 스페이스 룩(space look)의 특징은 2006년 샤이니 룩(shinny look)으로 재해석 된다.

1970년대는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사회적인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자, 패션에서는 합리적인 디자인의 다목적 아이템인 진(jean)과 팬츠(pants), 유니섹스 룩(unisex look), 스포츠 웨어 등이 나타나면서 패션의 캐주얼화가 가속화된다. 또한 60년대 후반 70년대 전기에 나타난 히피(hippies) 스타일은 2007·2008년 F/W시즌에 유행을 주도하자, 패션70년대 후반에는 레트로 경향이 강한 전원풍의 의상이나 실용적인 여성복 스타일도 등장하게 된다.

1980년대는 절충적인 스타일로 레트로 패션이

유행하여 동·서양의 절충, 서로 다른 이미지의 절충, 남성성과 여성성의 절충, 모더니즘과 복고풍의 절충 등이 특징이다.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어깨에 두툼한 패딩이 들어간 파워 슈트(power suits)와 짧고 타이트한 스커트 그리고 우아한 블라우스가 필수 아이템이었다. 이러한 80년대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볼 때, 전반기는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캐주얼웨어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반기에는 여성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가 중심을 이루게 된다.

밀레니엄을 앞둔 1990년대에는 20세기를 되돌아보기도 하듯 다양한 룩(look)들을 레트로 패션으로 풀어낸다. 90년대 초기에는 에콜로지(ecology) 패션의 유행으로 천연소재의 사용과 베이지, 그린 등의 자연색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되고, 이러한 특징은 시대의 회귀라는 사회적 정서에 힘을 얻어 거의 모든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공통된 컨셉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20세기 마지막 컬렉션인 1999년 F/W 컬렉션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반영이라도 하듯, ‘모던 레트로(modern retro)’의 열기가 정점을 이룬다.

20세기에 나타난 레트로 스타일의 분석⁹⁾에 대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적 절충주의 지향 - 역사·문화 절충주의
- ② 본질주의적 페미니즘(essentialistic feminism) 지향 - 인체의 강조, 인체의 노출, 인체의 과장 - 레트로 로맨틱리즘(retro romanticism)
- ③ 흥미, 유희성의 지향 - 패러디 기법
- ④ 리사이클링(recycling)을 통한 에콜로지(ecology) 지향 - 퓨전 에스닉 스타일(fusion ethnic style)

이와 같이 레트로 스타일은 어느 문화든 절충과 타협이 가능하며 자연적 발로의 인간의 본성과 환경에 대한 재인식 및 여성성의 재발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2000년대 이후 레트로 패션

2000년대는 경제적 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이 중요시되었는데 레트로 패션 역시 개인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다.

2000년의 레트로로는 여성스러움을 기본으로 글래머러스(glamorous)한 디자인이 등장하고, 1970년대 풍의 디스코 룩(disco look)이 부활하게 된다.

2001년 ‘『보그(Vogue)』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트렌드로 레트로를 지목하고, 디스코와 그런지 룩 패션이 거리를 휩쓸게 된다’¹⁰⁾고 하였다.

2002년에는 1970년대의 보헤미안, 뉴 히피 현상, 글램 룩(glam rock) 등이 트렌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글램 룩이란,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꽃 피운 록 음악의 한 양식으로 글리치(glitzy) 혹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의 음악적 사운드와 양성성을 나타내는 외모, 과장된 메이크업, 화려한 무대 의상과 장식 등 모호한 양성성과 인공성을 갖는 한 장르이다. 글램 룩의 과장은 젊은 층의 하위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독성이 강한 패션의 한 장르가 되었다. 글램 룩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는 짙은 화장과 현란한 의상, 망사 스타킹, 과장된 플랫폼 슈즈 등과 중성적이고 과격적인 퍼포먼스로 당시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젊은 층의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된다.¹¹⁾

2003년은 여성적인 우아함과 섹시함, 섬세함이 패션에 표현되고, 1960년대의 스페이스 룩에서 보여지는 미래주의 경향과 신비한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난다.

로맨틱 빈티지(romantic vintage)와 레이디 라이크 룩(lady-like look)이 테마로 떠오른 2004년에는 리본이 중요한 패션 키워드가 된다. 20세기에는 머리장식이나 모자에 하는 정도로 그쳤던 리본이 로맨틱 레트로의 붐을 타고 다시 의상의 표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웰빙(well-being)이라는 사회·문화적 양식과 더불어 기존의 단추, 지퍼와 같은 인위적인 요소가 리본이나 끈과 같은 자연적이고 복고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2005년은 에스닉(ethnic)과 트로피컬(tropical)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소를 보여 준다. 자유로운 느낌의 프린트와 패턴, 부드럽고 엘레강스 한 실루엣 등 레트로 클래식(retro classic)이 나타나게 된다.

2006년 내추럴리즘(naturalism)의 부활과 더불어 엘레강스 라인과 모던한 디자인 요소가 디자인에 접목되면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이 연출되고,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모티프가 지속되면서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은 패션에서 글로벌한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다.

2007년의 패션은 생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득하다. 과감한 컬러, 민속적인 의상, 스포티 룩(sporty look), 로맨틱한 프릴의 스커트와 메탈 장식 등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며, 서로 믹스한 스타일과 테넌부터 미니스커트 까지 모든 것이 함축되어 나타난다.¹²⁾

2008년의 스타일은 순수한 라인에 집중하는 웰빙 트렌드, 1920년대와 70년대의 트렌드를 간직하면서, 현대성을 수용하고, 이를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레트로 트렌드가 큰 축을 이룬다. 밝고 경쾌한 감성의 스쿨 룩(school look)과 프레피 룩(preppy look), 80년대의 브라이트(bright)한 컬러감과 그래픽적인 요소가 접목된 스포츠 룩(sports look)이 고급 캐주얼 룩(casual look)으로 제안된다.

2009년 패션에서는 넓고 각진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tailored jacket), 부풀린 머리 등 패션사에서 가장 요란했던 아이콘으로 꼽혔던 1980년대 열풍이 이어져, 많은 디자이너들이 80년대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을 선보이게 된다. 경기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패션만큼은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프린트, 빛나는 패브릭으로 색시하며 디스

코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2010년의 트렌드 키워드는 에콜로지의 퓨처리 스틱(futuristic)버전과 과거의 영광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매력적인 럭셔리요소와 클래식 요소로 재미있게 풀어낸 키치 클래식(kitsch classic)등이다. 도시적인 감각으로 재작업 된 컨템포러리 워크웨어(contemporary work-wear)와 70·80년대의 볼드(bold)한 주얼리(jewelry), 금속 장식과 화려한 골드, 그리고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터치감으로 표현되는 오브제들과 패턴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패션은 끊임없는 유통의 상태이기에, 현대 패션에서 레트로의 의미는 단순히 한 시대를 주도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조합시켜 총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2000년대의 핵심적인 패션 키워드가 되었다.¹³⁾

4.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 레트로 경향비교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의 레트로 스타일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1>과 같이 많은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레트로의 표현성에 있어 기본적인 조형의지를 추구하며 시대와 트렌드에 따라 재해석하는 방법의 세분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는 레트로의 표현에 있어 하나의 주제를 그 표현의지에 따라 구사하였다면 2000년대에는 하나의 주제보다는 다중적 접목에 의한 레트로의 표현경향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00년대는 1900년대를 배경으로 복고성에 근거할 범위가 커지게 되고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탈중심, 해체주의의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 1>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 레트로 경향 비교

구분	레트로 스타일	표현의지 및 특징	20세기 레트로 스타일 표현	21세기 레트로 스타일 표현
1)	포스트모더니즘 적 절충주의지향	역사·문화 절충주의 - 동·서양문화의 절충 - 에스닉 무드(민속의상) - 서로 다른 이미지의 절충 - 남성성과 여성성의 절충 - 모더니즘과 복고풍의 절충	네오 오리엔탈리즘	민속의상
			히피룩	뉴 히피 룩
			유니섹스 룩	글램룩스타일
			캐주얼웨어, 스포츠 웨어	스포츠 룩, 캐포 룩, 스쿨 룩
			핑크룩	핑크 룩, 프레피 룩
2)	본질주의적 페미니즘지향	인체의 강조 인체의 노출 인체의 과장	레트로 로맨티시즘 파워슈트	로맨틱 빈티지
				글래머러스 룩
				엘레강스
				파워슈트
3)	흥미, 유희성의 지향	패러디 기법 - 일상성과 변화성의 추구 - 하이테크와 하이타치의 융합 - 핸드크래프트(handcraft)적 요소 - 풍자와 아이러니, 의외성 - 초현실주의 - 과거역사의 복식의 차용	팝아트 패션	원색의 비비드 패션 캐릭터 패션, 키덜트 룩
			하위문화 스타일	힙합 스타일, 빈티지 룩
			스페이스 룩	사이니 룩, 퓨처리시틱 퓨처리즘+오리엔탈리즘
			키치	키치 클래식
			오피아트	다양한 패턴과 오브제의 사용
4)	리사이클링을 통한 에콜로지(ecology) 지향	천연소재 및 자연색 사용	퓨전 에스닉 스타일	에스닉 트로피컬
				내추럴리즘
				웰빙(기능성) 패션

III.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레트로의 표현

1.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2000년대 이전 컬렉션에 나타난 레트로

1) 스타일

두 디자이너에게 세기말을 전후로 등장한 레트로 스타일은 혁신적이고 아방가르드 경향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풍요로운 경제상황이 어깨와 허리의 강조로 표현되었던 80년대 스타일과 장식적 경향, 디스코 색 시폰이 나타났고, 70년대의 히피와 보헤미안 스타일(bohemian style)은 에스닉, 페전트(peasant) 패션 등으로 표현되었다. 여성적이고 우아한 50년대의 스타일적인 경향 역시 컬렉션에서 그대로 반영된

다. 룩의 실루엣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어깨, 허리, 밑단과 각 부위의 높이와 폭, 어깨에서 밑단까지 흐르는 라인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커트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가지 디테일에는 셔링, 핀턱, 러플 등이 있고, 부피감을 주거나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다소 과장된 실루엣을 연출하기도 한다. 드레이퍼리(drapery), 벨트, 끈 등과 같은 자연스런 여밈에 의해 나타나는 여유롭고 풍성함을 연출한 스타일과 시폰(chiffon), 새틴(satin)의 러플(ruffle), 플라운스(flounce)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고, 어깨를 덮는 큰 칼라를 절제된 화려함과 우아함을 연출해 주고 있다.¹⁴⁾

2) 소재

레트로 패션은 디테일이 섬세하고 장식적이므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레트로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 사용된 소재들을 살펴보면 현대 패션과 거의 유사하다. 두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나타난 소재의 경향을 살펴보면, 르네상스 복식에서부터 애호되었던 레이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실크로 된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레이스 장식이 많이 사용되어 여성의 섬세한 분위기가 한층 돋보인다. 또한 벨벳의 사용이 눈에 띄는데 벨벳은 귀족적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재로 복고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아이템으로, 표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 광택을 주거나 번아웃(burn-out) 가공을 하여 무너를 만드는데, 이러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입체감이 있으며 윤택한 느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3) 색채

레트로 패션의 색채 경향은 그 스타일만큼이나 다양하여 20세기 패션사에 등장했던 모든 색채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한데, 이는 컬렉션에서도 나타난다. 두 디자이너는 색채를 통하여 장식적이며 화려한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 안에 내재된 작품관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블랙을 중심으로 강렬한 레드, 그린, 옐로우, 핑크, 블루 등의 컬러와 화려한 패턴의 프린트는 레트로의 복고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해 준다.

4) 디테일

레트로 패션에 사용되는 디테일은 로코코 시대에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려하게 꾸민 것들로 재현과 재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목선과 소매, 스커트에 매우 장식적인 프릴을 만들어 달아줌으로써 더욱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블라우스의 칼라 부분과 스커트 밑단에 러플을 촘촘하게 잡아서 레트로의 이미지를 현대화하고 장식미를 부각했다. 또 주로 로코코 시대 로브에 사용되었던 리본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

기도 하고, 과장된 실루엣을 만들어 주는 어깨의 패드나 귀여운 스트링, 플리츠 장식, 스팅글, 비즈 장식등이 아방가르드의 실용성과 접목되어 나타났으며, 에스닉한 스타일과 오리엔탈 프린트 실크의 패치워크 작업이 모던하면서 세련미를 더해준다. 30년대 보헤미안 로맨틱을 잘 표현한 란제리(lingerie) 드레스, 할머니들의 나이트가운을 연상시키는 드레스에 러플을 이용한 장식과 자수(embroidery) 등으로 디테일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2.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2000년대 컬렉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표현특성

2000년대 컬렉션에 나타난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레트로 경향은 2000년대 이전의 시대적인 복고적 특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을 재해석하여 2000년대 이후 레트로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표현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포스트모더니즘적 질충주의-역사·문화 질충주의

1980년대를 런던에서 활동한 존 갈리아노는 역사적인 영감들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로맨틱하면서도 차별화된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후 활동무대가 파리로 옮겨진 1990년대는 런던활동 당시의 작품들에 비해 색상, 소재, 실루엣이 안정적이면서도 더 여성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감각의 창의성을 보여주게 된다.

갈리아노는 이미지의 차용을 아이러니한 패러디에 의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과거의 친숙한 요소를 여성적이면서도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다. 갈리아노의 역사·문화주의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니라 ‘이미지의 차용’으로서 현대패션의 정서와 시대상에 맞게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역사·



<그림 1> 크리스찬 디올,
2004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 알렉산더 맥퀸,
2009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문화주의는 그의 표현력 창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갈리아노에 의하여 현대디자인으로 재구성한 과거의 양식은 유희와 안락함과 환상을 제공한다<그림 1>.

최근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불리며 이벤트성이 강하고 다이내믹한 패션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영국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은 지방시(Givenchy)의 수석디자이너로 활동했고, 구찌(Gucci)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지금도 그의 작품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¹⁵⁾ 엄격한 테일러링과 날카로운 커팅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내려는 적극성과 도전정신으로 현대 패션계의 가장 주목 받는 디자이너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중문화와 상업주의 문화적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것이 특징이다<그림 2>. 그의 컬렉션에 나타나는 레트로는 전통과 현대, 아방가르드와 클래식적 조화를 패러디 기법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방대한 복식사적 지식과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의 조합으로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라인으로 재창조되었다.¹⁶⁾

2) 본질주의적 페미니즘 지향-(인체의 강조, 인체의 노출, 인체의 과장)-레트로 로맨틱 시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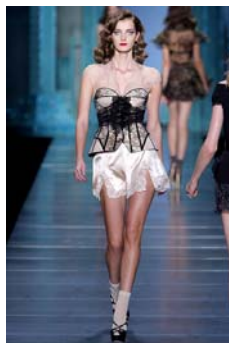
과거의 이미지를 그려서 미래에 재현하는 환상주의자인 존 갈리아노는 레트로 로맨틱시즘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을 완벽한 커팅과 구성력으로 보여주는데, 그 영향력은 로맨틱한 의상의 실루엣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탄탄하고 복합적인 구성력에 있으며, 커팅과 구성력의 완벽성은 해체를 통한 새로운 구성적 시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¹⁷⁾ 갈리아노의 레트로 로맨틱은 이미지에서 형태까지 모든 조형요소를 변형, 파괴, 해체시키고<그림 4>, 리듬과 비례를 혼합하여 부조화 중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고감도의 조형적 테크닉으로 구사되고 있다.¹⁸⁾ <그림 5>, <그림 6>



<그림 3> 크리스찬 디올,
2004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4> 크리스찬 디올,
2007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5> 크리스찬 디올,
2004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6> 알렉산더 맥퀸,
2009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7> 알렉산더 맥퀸, 2007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8> 알렉산더 맥퀸, 2007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은 속옷을 변형시켜 밖으로 내어 입는 스타일, 겹옷을 의도적으로 오픈하거나 내려서 노출하는 스타일, 겹옷 위에 속옷을 겹쳐 입는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알렉산더 맥퀸의 레트로 로맨틱시즘은 여성의 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본질주의적 페미니즘으로서 낭만적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림 7>, <그림 8>의 디자인을 통한 노출과 소재가 인체에 밀착됨으로 인해 과생되는 인체곡선의 노출 또는 인체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난다. 여성의 곡선적인 인체미를 잘 드러내주는 부드러운 실루엣과 매력적이고 화려한 소재의 사용, 과도한 장식을 통해 낭만적인 여성미를 더욱 강조한다.¹⁹⁾ 러플, 프릴, 주

름 등 로맨틱한 소재와 레이스, 망사조직과 같은 투명소재의 사용으로 뷔스띠에와 같은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과 깊은 슬릿이 있는 실루엣 등도 매력적인 느낌으로 나타난다.²⁰⁾

3) 흥미, 유희성의 지향—패러디 기법

2000년대 패션에서의 레트로 경향은 자율적인 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이미 익숙한 이미지를 차용하는 패러디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복고’라는 개념을 구성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과거의 익숙한 요소들을 인용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아이러니한 대조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은 강간, 노예, 교통사고, 기아 등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스스로 “나는 관객들이 쇼를 보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가 도하기를 바란다. 나는 극단적인 것이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중문화, 상업주의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그림 9>. 또한 고대라는 전통의 극단에서부터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패션의 1980년대 구조적인 형태까지 여러 시대를 복식의 패러디 기법을 이용한 조합을 통해 완벽한 재단으로 재탄생시켰다<그림 10>.²¹⁾



<그림 9> 알렉산더 맥퀸, 2006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0> 알렉산더 맥퀸,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1> 크리스찬 디올,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2> 크리스찬 디올,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3> 존 갈리아노,
2004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4> 크리스찬 디올,
2009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5> 알렉산더 맥퀸,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6> 알렉산더 맥퀸,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존 갈리아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페러디 기법은 유머러스한 ‘펀 스타일(fun style)’의 새로운 변화로 해석된다. 현재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메종을 이끌고 있는 그는 젊은 세대의 컨셉으로 자리 잡은 만화적 취향을 받아들여 다소 딱딱하고 정형화된 클래식 이미지였던 디올을 젊은 감각의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변신시킨다<그림 11>, <그림 12>. 종래의 진부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이미지를 참신한 소재와 재치 있는 펀 스타일로 제시하였다.²²⁾

4) 리사이클링을 통한 에콜로지 지향-퓨전 에스닉스타일

2000년대 정보과학 기술의 발전과 탈 이념화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유행의 공유 폭을 넓히고 있다. 즉 지구촌이라는 세계적인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를 혼합하여 새로운 가치관은 형성하게 된다.

존 갈리아노는 “같은 재료라도 섞을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그것이 곧 ‘유행’이 된다”²³⁾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 많은 조사, 여행,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믹스를 시도했으며, 2000년대 이후 이러한 퓨전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존 갈리아노는 동·서양 문화의

융합으로서 이국적인 소재, 색상, 문양, 디테일 등 민속복식이 혼합된 퓨전 에스닉 스타일을 많이 시도하였다<그림 13>, <그림 14>.

알렉산더 맥퀸은 <그림 15>, <그림 16>의 민속적인 요소간의 퓨전 에스닉 경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유럽 고전복식과 소수 민족 문화에 심취하여 인디언,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의 복식과 문화를 차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으로 서구 중심의 절대적 이상미에 도전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창조하였다.²⁴⁾

IV. 레트로 경향의 패션 스타일 유형 분석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와 컬렉션 의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레트로의 조형적인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7> 알렉산더 맥퀸, 2004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8> 크리스찬 디올, 2008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9> 알렉산더 맥퀸, 2009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0> 알렉산더 맥퀸, 2006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1> 크리스찬 디올, 2005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2> 크리스찬 디올, 2010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3> 알렉산더 맥퀸,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4> 알렉산더 맥퀸,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1. 레트로스펙티브 스타일의 재창조

1) 로맨틱 & 핑키 레트로 룩

레트로 로맨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스타일은 흔히 말하는 ‘퍼스트 레이디 룩(first-lady look)’인데, 두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도 비슷한 룩이 선보였다.

1940년대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부터 2000년대의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까지 세대를 뛰어넘는 클래식한 패션은 많이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컬렉션에 나타난 스타일은 꼭 끼는 블라우스에 허리는 조이고 스커트는 풍성한 실루

엣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 코트를 매치하거나 모피 숄을 둘러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다. 어깨선이 하늘로 붓긋 솟은 재킷, 흔히 말하는 파워숄더 재킷도 눈에 띄는 아이템인데, 파워풀한 여성의 당당한 커리어우먼을 상징한다. 이러한 파워숄더 재킷의 근간은 패션 아이콘이자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 비(Diana Spencer)의 퍼스트레이디 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여성스러운 퍼스트레이디 룩은 젊은 층을 위한 길이가 짧고 러블리한 미니원피스의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17>, <그림 18>.²⁵⁾

21세기의 ‘핑키 레트로(funky retro)’는 1970년대

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이 다소 부드럽게 재해석된 것이 특징이다. 과장된 디테일 장식과 언밸런스 디자인, 스타드 장식이 계속적으로 유행하지만, 이러한 모든 아이템 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이크로 미니스타일(micro-mini style)’이다. 팬츠와 스커트 길이가 더욱 짧아졌고, 짧은 길이의 블레이저, 앵클 삭스(ankle socks)와 웨지 힐의 스트랩 슈즈로 마무리 되었다<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글램 록 스타일의 글리터링(glittering) 팬츠 슈트와 크리스탈 미니드레스와 같은 블링블링 한 아이템, 체인 액세서리와 터프한 스타드 디테일, 핑크 프린트, 바이커(biker) 재킷 등의 아이템과 블랙의 가죽 원피스에 무시무시한 스타드가 박힌 벨트를 두른 스타일도 핑키 레트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그림 22>.²⁶⁾

2) 프레피 록

‘프레피 록(preppy look)’이란 미국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본뜬 캐주얼 스타일을 말하는데, 원래 기본구조는 팬츠와 재킷, 셔츠 그리고 스웨터, 여기에 체크패턴의 아이템을 클래식하면서도 단정하게 입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조끼와 보타이(bow tie; 나비넥타이)로 멋을 내거나 체크패턴의 모자를 매치시키기도 한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제 교복 입은 고등학생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컬렉션에 나타난 프레피 록의 경향은 체크 패턴의 미니 원피스, 미니 플리츠(pleats) 스커트에 짧은 카디건을 매치하거나 쇼트 팬츠에 베스트를 입고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캐주얼한 프레피 록의 형태가 나타났다.

2. 에스닉 퓨전 스타일

1) 밀리터리풍의 마린 록

‘마린 록(marine look)’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유럽에서 민족주의 열풍을 타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스타일로 선원, 바다, 해병, 어부 등 바다와 관계되는 모티프를 활용한 패션이다. 마린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스트라이프(stripe) 패턴이다. 마린룩의 스트라이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폭으로 흰색과 네이비 블루가 교대로 배열된 마린 스트라이프(marine stripe), 가느다란 폭의 파이어리츠 스트라이프(pirates stripe), 곤돌라의 뱃사공이 입고 있는 것에 유래된 굵은 터치의 곤돌라 스트라이프(gondola stripe) 등이 그것이다. 체복 느낌이 나는 단정한 스타일이나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원피스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베레모, 마린



<그림 25> 알렉산더 맥퀸, 2009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6> 크리스찬 디올, 2008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7> 크리스찬 디올,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8> 크리스찬 디올,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9> 알렉산더 맥퀸,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30> 크리스찬 디올, 2008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셔츠, 세일러 톱(top), 네이비 블루중(blouson), 세일러 팬츠, 금속단추나 해군 엠블렘(emblem) 등으로 마린룩을 완성한다.

컬렉션에서의 마린 룩 경향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스트라이프 패턴 대신 기하학적인 블루 패턴의 팬츠 슈트나 블루 그라데이션의 드레스로 표현하거나<그림 25>, <그림 26>, 블랙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한 페도라(fedora)와 같은 소품, 루즈(loose)한 셔츠와 매치한 스트라이프 와이드 팬츠가 마린 룩의 변형 스타일로 클래식한 형태를 보여준다<그림 27>, <그림 28>.

2) 아프리카 룩

아프리카 대륙의 뜨거운 토양을 담은 컬러나 엘로우, 오렌지, 레드 등의 밝고 강렬한 컬러, 지브라(zebra)와 레오파드(leopard) 무늬의 애니멀(animal) 프린트, 크기가 크고 볼드 한 느낌의 액세서리 등을 모티브로 한 패션을 아프리카 룩(African look)이라 한다. 컬렉션에서도 이러한 모티브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넉넉한 실루엣의 셔츠나 초원을 연상케 하는 카키컬러의 탱크 톱(tank top), 애니멀 프린트 블라우스와 톤 온 톤(tone on tone)의 정장 바지 또는 스커트 등이 룩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죽 스트랩의 글래디에이터 샌들이나 애니

멀 프린트 등으로 표현된 샌들, 굵고 길게 늘어지는 목걸이, 뱅글, 사이즈가 큰 귀걸이, 깃털이나 에스닉 한 느낌의 수술 장식, 원색의 선글라스나 페도라 등의 소품들이 아프리카 룩을 완성시키고 있다<그림 29>, <그림 30>.

3. 스포티 & 영 감각의 캐주얼 스타일

1) 캐주얼 워크웨어 룩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은 가장 독창적이고 전위적인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이기에 캐주얼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들 컬렉션에서의 ‘캐주얼 워크웨어 룩’의 의미는 너무 캐주얼하거나 또는 너무 클래식하지 않은 ‘변신을 위한 룩’을 나타낸다. 루즈한 실루엣의 재킷과 티셔츠를 매치한 뉴 엣지 룩(new edge look)이라든지, 전체적인 룩은 심플하되 엣지 있는 액세서리로 액센트를 주는 캐주얼 파워 룩(casual power look)으로 1980년대의 레트로를 표현하고 있다. 블랙의 슬림 한 팬츠에 글리터링 한 소재의 블랙 세미 파워 재킷을 매치하여 낮에는 도시의 도회적인 커리어우먼을 밤에는 트렌디 한 클럽 길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그림 31>, <그림 32>.



<그림 31> 알렉산더 맥퀸, 2006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32> 크리스찬 디올, 2005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33> 알렉산더 맥퀸,
2004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34> 알렉산더 맥퀸,
2006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35> 크리스찬 디올,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36> 크리스찬 디올,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2) 스포티 이지웨어 룩

2000년대 레트로의 트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일 중 하나가 복고풍의 ‘스포츠 이지 웨어 룩’이다. 다만 컬렉션에서 보여 지는 룩은 디자인과 패턴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나타난다. 예전의 스포티 룩이 큐트(cute)하고 보이시한 매력이었다면 2000년대는 레이스나 시폰을 가미한 걸리시(girlish)한 스타일로 변형되었고, 소재면에서도 코튼 뿐 아니라 부드러운 저지, 광택감 있는 소재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트렌디한 액세서리,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을 스트랩 슈즈나 웨지 힐과 매치시켜 스포티 특유의 활동적인 느낌과 레트로 경향의 여성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믹스하여 표현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21세기의 레트로 패션은 현재의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스타일을 표방하고 재창조하려는 주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2000년대 컬렉션에 나타난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레트로 표현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절충주의에 있어 존 갈리아노는 역사·문화

주의를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니라 ‘이미지의 차용’으로서 현대 패션의 정서와 시대상에 맞게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그에 의하여 현대디자인으로 재구성한 과거의 양식은 유희와 안락함과 환상을 제공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중문화와 상업주의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것이 특징으로 방대한 복식사적 지식과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의 조합으로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라인으로 재창조되었다.

본질주의적 페미니즘 지향의 레트로 로맨틱시즘을 존 갈리아노는 모든 조형요소를 변형, 파괴, 해체시키고, 리듬과 비례를 혼합하여 부조화 중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고감도의 조형적 테크닉으로 구사하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의 레트로 로맨틱시즘은 여성의 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본질주의적 페미니즘으로서 낭만적 스타일을 보여준다. 여성의 곡선적인 인체미를 잘 드러내주는 부드러운 실루엣과 매혹적이고 화려한 소재의 사용, 과도한 장식을 통해 낭만적인 여성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흥미, 유희성의 지향의 패러디 기법에 있어 존 갈리아노는 유머러스한 편 스타일의 새로운 변화

로 해석된다. 다소 딱딱하고 정형화된 클래식 이미지였던 디올을 젊은 감각의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변신시킨다. 종래의 진부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이미지를 참신한 소재와 재치 있는 편 스타일로 제시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상식을 뛰어넘는 주제로 대중문화, 상업주의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대라는 전통의 극단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패션의 1980년대 구조적인 형태까지 여러 시대를 복식의 패러디 기법을 이용한 조합을 통해 완벽한 재단으로 재탄생시켰다.

리사이클링을 통한 에콜로지 지향의 퓨전 에스닉 스타일을 존 갈리아노는 동·서양 문화의 융합으로서 이국적인 소재, 색상, 문양, 디테일 등 민족 복식이 혼합된 퓨전에스닉 스타일을 많이 시도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민족적인 요소간의 퓨전 에스닉 경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이너로 유럽 고전복식과 소수 민족 문화에 심취하여 인디언,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의 복식과 문화를 차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요소를 도입하여 2000년 이후 발표되었던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의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트로스펙티브 스타일의 재창조는 퍼스트 레이디 룩의 허리를 조이는 풍성한 실루엣의 스커트와 H라인의 원피스, 어깨선이 하늘로 봉긋 솟은 재킷 등으로 여성스럽고 젊은 층을 위한 길이가 짧고 러블리한 미니원피스 형태의 변형되어 나타났다.

둘째, 핑키 레트로는 1970년대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이 다소 부드럽게 재해석된 것이 특징인데, 과장된 디테일 장식과 언밸런스 디자인, 스타드 장식, 마이크로 미니스타일은 핑키한 레트로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프레피 룩을 통해 체크 패턴의 미니 원피스, 미니 플리

즈 스커트에 짧은 가디건을 매치하거나 쇼트 팬츠에 베스트를 입고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캐주얼 룩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셋째, 에스닉 퓨전 스타일의 마린 룩을 통해 전형적인 스트라이프 패턴 대신 기하학적인 블루패턴의 팬츠 슈트로 표현하거나, 블랙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한 페도라와 같은 소품, 루즈한 셔츠와 매치한 스트라이프 와이드 팬츠가 마린룩의 변형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아프리카 룩 역시 에스닉 퓨전 스타일의 하나로 넉넉한 실루엣의 셔츠나 초원을 연상케 하는 카키컬러의 탱크 톱, 애니멀 프린트 블라우스와 톤 온 톤의 정장 바지 또는 스커트 등이 컬렉션에 나타나고 있고, 가죽 스트랩의 글래디에이터 샌들이나 애니멀 프린트 등으로 표현된 샌들, 굽고 길게 늘어지는 목걸이, 뱅글, 사이즈가 큰 귀걸이, 깃털이나 에스닉 한 느낌의 수술 장식, 원색의 선글라스나 페도라 등의 소품들이 아프리카 룩을 완성시키고 있다.

네째, 캐주얼 워크웨어 룩으로 너무 캐주얼하거나 또는 너무 클래식하지 않은 변신을 위한 룩을 표현하였다. 2000년대 레트로의 트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일 중 하나로 스포티 이지웨어 룩을 레이스나 시폰을 가미한 걸리시한 스타일로 변형되었고,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을 스트랩 슈즈나 웨지 힐과 매치시켜 스포티 특유의 활동적인 느낌과 레트로 경향의 여성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믹스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트로는 패션과 예술, 문화 산업 등에서 시대를 떠나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역사나 이미지를 재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자이너의 감성을 복합적으로 접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200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재해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가지의 레트로 특성을 접목하기 보다는 상호 관계와 복합성을

가진 다중적 주제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레트로의 재해석에 대한 연구는 비록 연구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있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본 연구가 디자이너 2명의 컬렉션 의상을 분석하는 형태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레트로의 세계적인 경향이나 일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경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고인이 된 천재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이나 작품의 조형적인 독창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Tucker, A. & Kingswell, T. (2000). 패션의 유희, 김은옥 옮김 (2003). 서울: 예담, pp.8-9.
- 2) 주미영, 김영인 (2006). 패션에 있어서 시간성이 반영된 룩에 관한 고찰, 복식, 56(6), p.2.
- 3) 나현신, 전혜정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르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p.466.
- 4) 장애란 (2002).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복식, 52(2), p.92.
- 5) Martin, R. & Koda, H. (1989). The Historial Mode, New York: Rizzoli, p.7.
- 6) Webster's college dictionary (2nd ed.) (1998). New York: Radom House, p.1151.
- 7) Tokyo Esmode. (2007). Inter Donne Co. Promotion st 2 권, 동경: 대양출판사, p.66.
- 8) 박혜원, 이미숙 (2002). 레트로(Retro) 패션의 특성과 문화산업적 의미 연구, 복식, 52(3), p.175.
- 9) 장희숙 (1995). 현대 Fashion에 나타난 Retro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19.
- 10) 권실비아 (2007). 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4.
- 11) 서이자 (2002). 포스트모던 음악의 등장과 민중문화 전통의 재건, 한국미국사학회지, 16(-), pp.251-278.
- 12) Mastering This Season's Trend, Bright (2007. 4. 5).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3. 5. <http://www.samsungdesign.net>
- 13) 1980's Fashion Revivals (2009. 3. 23).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3. 5. <http://www.samsungdesign.net>
- 14) 박혜원, 이미숙. 위의 논문, pp.171-187.
- 15) 권혜숙 (2004). 알렉산더 맥퀸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적 아방가르드 성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
- 16) 김주연, 이효진 (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학회지, 13(2), p.307.
- 17)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패션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6), pp.56-57.
- 18) 공미선, 채금석 (2003). Christian Dior 오뜨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 복식, 53(2), p.66.
- 19) 진경옥. 앞의 논문, p.55.
- 20) 이민정, 이인성 (2009). 현대 로맨틱시즘 패션에서 나타난 믹스 앤 매치 스타일 분석, 복식문화학회지, 17(4), p.660.
- 21) 김주연, 이효진. 앞의 논문, p.304.
- 22) 이귀영, 조규화 (2009). 존 갈리아노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3(2), p.56.
- 23) 위의 논문, p.57.
- 24) 김주연, 이효진. 앞의 논문, pp.305-306.
- 25) McDowell, C. (1998). Galliano, New York: Rizzoli, pp.46-51.
- 26) FASHIONSHOWS, Christian Dior (2008. 8. 12). 스타일닷컴, 자료검색일 2010. 4. 30. <http://www.style.com>
- 2008 Spring Women's Trend (2008. 1. 25).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4. 30. <http://www.samsungdesign.net>
- 최순영 (2009. 6). 판타스틱 한 액세서리들로 파워풀하게 무장해 한층 더 아름다운 시즌, 80's PUNK, 엘르, 자료검색일 2010. 4. 30. <http://www.elle.co.kr>
- 구정모 (2008. 3). 올해 유망한 창업분야,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0. 2. 26. <http://news.hankooki.com>

Reinterpretation of Retro in the 21st Century Fashion

- Focusing on John Galliano and Alexander McQueen's Collections -

Kim, Young Ran

Full-time Instructor, Shoe Design Course, Dept. of Coordination Design, Hyecheon University

Abstract

The retro of fashion originates from the inclusive expression and retro-style of post-modernism. Fashion is a fundamental way to represent a culture and has a power to reconstruct culture through visual metaphor. Some of the elements used are gender, time, place, and occasion each of which may be combined with one another to create a new aesthetic value. In particular, retro strongly emphasizes the concept of time. Over time, the concept of time has been categorized into circular and straight time, and objective and subjective time, such concept has been changing constantly contributing to new historical perspectives as well as culture. Retro in modern fashion does rather borrows elements from earlier fashions than repeat them. For instance, representative styles, silhouettes, and items of earlier fashions are combined with modern materials, new technology and modern designs. In addition, traditional fabrics, patterns, and past production techniques may be re-introduced and nostalgic decorations, hair-style, and accessories re-appear. In this study, retro of modern fashion design is analyzed by examining the collections of two world renowned British designers John Galliano and Alexander McQueen and their retro trends and methods of reinterpretation. Their collections from 2000 to the present day are examined, retro trend and it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s a result, the 21st century retro fashion has a tendency to run away from the present, reality, admires colorful and decorative styles, and accomplish creativity. Retro connects the past with the present as well as the present with the future in fields of fashion, art, culture and other industries. It reflects trends and combines and interprets designers' sensibility, and redefined retro in the 21st century context. In other words, retro is a combination of a variety of subjects that allow interaction and complexity.

Key words: retro, post-modernism, reinterpretation, John Galliano, Alexander McQueen